

## 전통담, 전통지붕 관리실태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적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

채혜성 · 민소영\* · 류선정\* · 안동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A Survey on the Traditional Walls and Roofs Maintenance and the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Traditional Walls and Roofs

Chae, Hyesung · Min, So-Young\* · Ryu, Sunjung\* · Ahn, Tong-Mah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DPPRLC),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currently offers subsidies to rural villages to encourage the growing of flower crops or wild flowers instead of common grain. However, in many of these villages, major landscape elements like walls and roofs of houses are built with cheap, urban materials, and kept in poor condition. This is a poor reflection of the DPPRLC goal to improve the aesthetic of korean rural landscape. This study surveyed and analyzed traditional style walls and roofs in ten selected villages taking part in the DPPRLC program. Villagers were interviewed for a proposed direct payment program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traditional walls and roofs. Major findings are: First, more than 86% of residents are willing to build and maintain traditional walls if subsidies are given. They would like to be reimbursed 75% to 100%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Second, about 64% of residents would be willing to build and maintain traditional roofs with the subsidies. They also would like to receive 75% to 100%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extending the DPPRLC program to include walls and roofs in rural villages will make rural landscape more attractive.

**Key words :**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Korean rural villages, traditional walls and roofs.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농촌에서는 소득안정, 도농교류 증대를 위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그 주요 수단으로 농촌경관의 보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도와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제도나 활동이 경관작물 재

배, 꽃길·화단가꾸기와 같이 일시적인 자연경관의 연출에 비중을 두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농촌경관 요소로서 지역적 의미가 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농촌경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문화적 농촌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농촌경관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또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역사문화경관은 첫째,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여 역사로부터 교훈, 교육적 효과를 얻고, 둘째, 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각적, 심미적 다양성과 거주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경제적으로

Corresponding author : Chae, Hyesung

Tel : 02-880-4884

E-mail : aidang77@snu.ac.kr

골동품적 투자가치, 관광 수입증대, 건축물 재활용의 실익이 있고, 끝으로 상징적 의의로서 특정인들의 추념이나 정신적 중심역할을 하는 등의 이유에서 보전할 필요가 높다고 하겠다.(Attoe, 1979:도시정보, 1988: 안동만, 1993: 104 재인용) 또,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적 경관요소는 농촌경관에 있어 농촌다움과 선호도가 높게 평가된 경관요소이므로(안동만, 2005), 농촌경관의 지속적이고, 균형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전가치가 높은 전통적인 농촌경관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경관요소로서 심미적, 시각적 측면에서 경관영향이 큰 전통담<sup>1)</sup>과 전통지붕<sup>2)</sup>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조금 제도 시행에 대한 주민의식을 파악해보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전통담, 전통지붕 확대적용에 대한 제도적 제언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발전적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농촌경관의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요소인 전통담과 전통지붕의 두 가지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적 현황 및 관리실태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적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담과 전통지붕의 관리를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제도적 제언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통담과 전통지붕의 관리실태 및 주민의식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지로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담과 전통지붕이 보전되고 있는 10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10개 지역 선정을 위해 먼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47개(2007년 기준) 지역 중 전통담과 전통지붕이 보전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7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통담 중 생울타리 고찰을 위해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전통담과 전통지붕의 다양한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전통지붕의 종류인 초가, 굴피, 너와 등은 생활주택으로 보전함에 있어 재료 및 관리 상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분포하지 않고, 부수적 제도마련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위의 연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 및 면담조사, 설문조사를 하였다.

문헌조사는 농촌의 전통적 경관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경관요소로서 전통담, 전통지붕 유형 및 특성에 대한 문헌자료를 살펴보고, 전통담, 전통지붕의 조성 · 관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현장 및 면담조사는 2007년 10월 5-19일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는 2007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역 관할 면사무소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전통담과 전통지붕이 보전되어 있는 지역을 1차 선별하였고, 추가 생울타리가 보전되어 있는 지역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이렇게 선정된 10개 지역에 대해 전통담, 전통지붕 조성 및 관리실태, 그리고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Table 1 조사대상지 및 일정

전통담	전통 지붕	조사대상지				경관 작물	조사일자
		사·군	읍·면	리·동	마을		
돌담	기와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	한개	유채	2007. 10. 5
		고성군	하일면	화림리	학동	메밀	2007. 10. 8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동해	유채	2007. 10. 19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법곡	유채	2007. 10. 18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상평	자운영	2007. 10. 19
토담	기와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남사	유채	2007. 10. 5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상모	유채	2007. 10. 8
생울 타리	-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이목	-	2007. 10. 9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공동	-	2007. 10. 9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만각동	-	2007. 10. 9

설문조사는 현장 및 면담조사와 같은 대상지에서 같은 시기에 실시하였고, 전통담, 전통지붕 각각에 대해 소유 여부를 구분하여 만20세 이상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한 참여의사와 보조금 지급수준 및 방법에 관하여 설문하였다(Table 2). 단, 설문조사자수와 현장조사 개소수는 차이가 있다.

Table 2 지역별 조사대상자

지역 조사 대상자(수)	한개 마을	학동 마을	동해 마을	법곡 마을	상평 마을	남사 마을	상모 마을	이목 마을	공동 마을	만각 마을	합계
전통담	소유	4	10	9	4	10	7	6	3	3	58
	무소유	8	6	6	2	4	9	5	-	-	40
전통 지붕	소유	10	3	1	1	3	5	8	-	-	31
	무소유	3	12	3	5	11	8	7	-	-	49
합계		25	31	19	12	28	29	26	3	3	178

## II. 이론적 고찰

### 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관련 연구동향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해 농어촌연구원(2004)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농림부(2005)와 성주인 외(2008)은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실태 모니터링, 농민과 담당공무원 설문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채혜성 외(2006) 및 장효선(2007)은 시범사업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채혜성 외(2008)은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성보(2007)과 고성보(2008)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주밭담과 제주감귤(원)의 직불대상 선정에 대한 의식조사 및 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Table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내용
농어촌 연구원	2004	경관보전 직불제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의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농림부	2005	2005년 시범사업의 전반적 내용정리, 사례지역 사업실태 모니터링, 농민과 담당공무원 설문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연구
정철모	2005	경관농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청보리밭 사례조사를 통해 경관보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채혜성 외	2006	현장답사 및 방문객설문을 통해 시행실태를 분석하고, 경관보전직불제 확대시행에 대한 의식조사하여 개선방안 연구
고성보	2007	제주밭담의 경관가치를 CVM으로 측정하고, 밭담 보전 및 기금마련에 대한 의식조사
장효선 외	2007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사례지역을 선정,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보색함으로서 제도적 보완사항 제언 연구
고성보	2008	제주감귤(원)경관 경계적 가치 보전기금기부의사를 통해 측정
성주인 외	2008	마을대표, 주민, 담당공무원 등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성과분석을 발전과제를 도출연구
채혜성 외	2008	영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보조금지원제도 고찰을 통해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연구

##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해외 관련 제도 고찰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국·내외 제도로서 우리나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와 유사한 영국의 환경관리제, 일본의 협약에 의한 지자체별 경관정비사업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수요증가를 충족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도입되어 ‘05·’07 시범사업을 거쳐 ‘08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관의 조성 및 유지·보전에 대해 정부재정으로 직접 지불하는 제도로서 주요 협약내용은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관작물을 최소 0.5ha, 마을단위 2ha이상 집단화하여 식재한 경우 동계 100만원/ha, 하계 170만원/ha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상작물은 유채, 메밀, 야생화 등 경관형성의 효과가 우수한 작물을 시장,

군수가 인정토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특히 마을 내 경관자원 활용 및 경관개선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방식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김종철, 2007; 성주인 외, 2008).

영국의 환경관리제(Environmental Stewardship)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경관 관리를 위해 자연미, 역사·문화, 야생동·식물, 평온성(tranquility)의 보전과 레크레이션 활성화를 기본 목표로 다양한 경관관리방안과 그에 따른 직불금을 메뉴형태로 마련하여 협약내용으로 제시하고, 농민이 직접 각자의 조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경관관리를 계획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특히 이 때 각 농장은 경관특성에 의해 정립된 경관유형을 고려하여 관리항목을 선정하며, 이를 관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두어 농민의 경관관리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는 경관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군마현 니이하루무라지역에서는 경관형성지구와 경관협정지구를 구분하여 지붕, 외벽 등을 전통적 기준에 맞게 신·증·개축 및 보수할 때 경비의 1/2-2/3(150만엔 한도)을 지원하고, 경관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해 2000엔×세대수로 계산하여 지구당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경관으로서 마을주택과 가로를 옛모습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사업의 수준으로 경관작물이라는 단일 경관요소에 적용 중에 있어 농업생산경관에만 그 효과가 한정적이다. 반면, 영국은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경관요소에 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전국토에 대한 경관목표상을 설정하고 있어 다양한 경관요소에 대한 관리활동이 체계 하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위사업의 성격을 갖지만 내용적으로 세분하여 전통건축물의 구조적 측면, 현상태 등에 따라 보조금 및 관리방법을 세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 III. 결론 및 고찰

### 1. 전통담, 전통지붕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분석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10개 조사대상지를 중심으로 전통담과 전통지붕의 현장조사와 주민면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부록 참고)을 경관적 영향이 큰 재료에 따라 대분류를 하고<sup>3)</sup>, 각각 규격(높이/두께 또는 칸), 재료, 관리실태(관리주기, 관리방법)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전통담 관리현황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한 결과로서 농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전통담은 돌담, 흙돌담, 생울타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4). 첫째, 돌담의 축조 연대는 최소 2년에서 최대 200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그 중 50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높이는 최소 100cm에서 최대 250cm까지 분포하였고, 101cm~150cm 높이가 가장 많았고, 겹담과 흙담이 비슷한 숫자로 분포하였다. 두께는 최소 30cm에서 최대 60cm였고, 31cm~40cm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는 강돌, 청돌, 막돌 등 주변 산이나 계곡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돌을 사용하였고, 일부 신축한 경우 호박돌로 조성되어 있기도 하였다. 대부분 주변 산이나 강에서 재료를 직접 채취하였으므로 조성비용이 따로 소요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실태는 돌담은 축조 후 특별히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폭우 시 수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점검하고 있었다. 한편, 절반이상은 축조된지 100년이상 되어 전반적으로 지반침하에 따른 훼손의 우려가 있었다. 둘째, 흙돌담의 축조 연대는 이제 막 조성하여 1년 이하에서 최대 150년까지 있었고, 51년~100년이 가장 많았다. 높이는 최소 140cm에서 최대 230cm까지 분포하였고, 151cm~200cm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두께는 최소 40cm에서 최대 60cm였고, 41cm~50cm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재료는 막돌, 강돌과 흙, 짚 등이 사용되는데, 이 모든 재료는 주위에 가까이 있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하여 주변 자연과의 조화 및 수송비를 절감하였다. 또한, 비가 담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에 기와를 얹었다. 관리실태는 장마나 우천 시 유실의 우려가 있어 여름 이전에 점검하고, 일반적으로 장마 이후 주기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있었다. 셋째, 생울타리의 조성연대는 최소4년에서 최대 80년이며, 50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높이는 최소60cm에서 최대 250cm이고, 101cm~150cm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두께는 최소 45cm에서 최대 130cm이고, 41cm~50cm과 61cm~70cm이 공동으로 많이 나타났다. 재료는 탱자나무, 쥐똥나무, 무궁화 등의 관목류가 많았고, 일부 뒷담의 역할로 조릿대를 대나무로 엮어두기도 하였다. 이들 수목은 씨앗을 인근 산에서 채취하여 직접 모종을 키워 이식한 것이었다. 관리실태는 주기적인 전정이 필요한데 많게는 여름에 2주마다 하여 1년에 10여 차례, 적게는 봄에 1회, 여름에 2회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탱자나무 가시는 유아나 보행자에게 위험요인이 되므로 전정 후 처리가 중요하였다.

전체적으로 재료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통담의 관리는 소재지의 거주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는 마을 안길 정비차원에서 마을사업으로 공동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전통담이 존재하지 않는 농가 조사 결과, 기존 전통담은 대부분 새마을운동 시 도로 확장 때 이격하면서 훼손되거나, 차량 및 농기구의 마당 진입을 위해 파손되었다. 그리고, 신축 시 전통담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자연재료 운반 및 축조 등 조성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대식 블록담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관리가 번거롭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현대식 주택에 걸맞는 현대식 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Table 4 전통담 규격, 재료, 관리실태

구분	돌담	흙돌담	생울타리
연 대	50년이하	9*	2
	51~100년	7	11*
	101~150년	3	-
	151~200년	1	-
	모르겠음	5	-
	계	25	13
높 이	51~100cm	1	-
	101~150cm	14*	3
	151~200cm	8	9*
	201~250cm	2	1
	251cm이상	-	0
	계	25	13
두 께	30cm이하	3	-
	31~40cm	9*	5
	41~50cm	7	6*
	51~60cm	6	1
	61~70cm	-	-
	71~80cm	-	1
재 료	100cm이상	-	2
	계	25	13
	돌(막돌, 강돌, 호박돌, 청돌 등), 토기와	돌, 흙, 토기와	탱자나무, 쥐똥나무, 무궁화, 조릿대
관리 실태	· 축조 후 주기적 관리 필요 없음. · 수해발생시기 및 폭우 시 특별히 축대 관리	장마철을 전후하여 1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	전정은 많게는 1년에 10여회(여름 2주마다 실시), 적게는 봄 1회·여름 2회 실시

\* 는 상위빈도 항목

## 2) 전통지붕 관리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에 존재하는 전통지붕 형태의 재료는 전통기와(토기와), 함석기와, 시멘트기와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5). 첫째, 전통기와의 조성연대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200년이고, 그 중 51~100년이 가장 많아 대체적으로 일제시대에 축조되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에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대규모까지 다양하였고, 정면 5칸, 측면 2칸과 정면 4칸, 측면2칸이 가장 많았다. 보전상태는 조사대상 전통기와 중 거의 대부분이 양호하였다. 관리실태는 한번 축조하

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내구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칠을 해 주고, 보수작업은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있었다. 또, 전통기와가 조성되어 있는 주택은 민속자료 및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역사적 의미가 있어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마당의 정원도 잘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함석기와의 조성년대는 최소 1개월 전에 축조된 것에서부터 5년까지 있어 대부분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모는 전통기와 주택에 비해 작아서 정면 3칸, 측면 1칸과 정면 4칸, 측면 1칸의 두 종류가 동일한 숫자로 분포하였다. 보전상태는 전통기와 보다는 양호하지 않았지만, 양호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관리실태는 주기적으로 특별한 관리는 없고, 누수나 훼손 시 보수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함석기와는 단열 및 보온효과가 낮고, 우천 시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의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었다.셋째, 시멘트기와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0년까지 축조년도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규모는 최소 정면 3칸, 측면 1칸에서 최대 정면 4칸, 측면 2칸이었고, 그 중 정면 4칸, 측면 1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보전상태는 전통기와와 함석기와에 비해 양호하지 못하였으나 조상대상 시멘트기와의 절반 정도가 양호하였다. 관리실태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는 않았다.

Table 5 전통지붕 규격, 재료, 관리실태

구 분	전통기와	함석기와	시멘트기와
연 대	50년이하	2	6*
	51~100년	7*	-
	101~150년	2	-
	151~200년	2	-
	계	13	6
규 모	5×3칸	1	-
	5×2칸	4*	-
	4×3칸	1	-
	4×2칸	4*	1
	4×1칸	2	3*
	3×1칸	1	3*
	계	13	6
관리 실태	· 특별한 관리 필요치 않으나, 보수 시 전문기술자 필요 · 내구성 강화 위한 회칠	특별한 관리 없이 누수나 훼손 시 보수	특별한 관리 필요 없음
기타	·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가치 높은 구조물 다수 · 대부분 정원 조성	단열, 보온효과가 낮고, 우천 시 소음 발생	

\* 는 상위빈도 항목

전통지붕은 전문기술자에 의해 축조되고 유지·보수되고 있으며, 지붕을 포함하여 전통주택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타지에 있던 후세대들이 귀향하여 리모

델링하거나 원상태로 복원하여 거주하기도 하였다. 또, 농가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의 본체와 창고, 헛간으로 이용되는 부속채로 구성되는데, 조사 결과 본체가 전통지붕형태의 기와로 조성되어 있는 반면, 부속채는 그와 무관하게 박공형 슬래트지붕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통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농가 조사 결과, 새마을운동 때 지붕개량사업으로 전통지붕이 대부분 소실되었는데, 기존에 초가였던 골조에 하중문제로 토기와를 얹기 힘든 구조적 한계와 함께 당시 저렴하고 단기간 시공이 가능한 슬래트 보급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또, 전통주택 자체의 좁고 생활하기 불편한 점을 이유로 전면 개조하여 현대식 주택을 신축하였다.

## 2. 주민의식 설문조사 분석

기존에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다운 경관연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를 전통담, 전통지붕 보전을 위해 적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내용은 제도 참여의사와 보조금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협약 시 관리주체 등이고, 조사결과는 전통담, 전통지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전통담

전통담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 시 참여의사는 86%가 긍정적 의사를 갖고 있었고,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는 제도시행 시 번거롭기 때문이 가장 높았고, 전통담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 후손들이 원치 않기 때문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보조금은 크게 조성을 위한 비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구분하였는데, 조성비에 대한 보조율은  $75\% < X \leq 100\%$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5\% < X \leq 50\%$ ,  $50\% < X \leq 75\%$  순이었다. 관리비에 대한 보조율은  $75\% < X \leq 100\%$ 이 가장 높았고,  $25\% < X \leq 50\%$ ,  $0\% < X \leq 25\%$  순이었다. 또 보조금 지급주기는 '관리 때마다' 지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67.1%), 지원단위는 '가구당' 직접 지급을 가장 선호하였다(62.4%). 전통담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의견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6).

한편, 전통담 보유 여부에 따른 보조금 비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조성비에 대해서는 전통담을 보유한 경우  $75\% < X \leq 100\%$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 < X \leq 50\%$ ,  $50\% < X \leq 75\%$  순이었고, 전통담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75\% < X \leq 100\%$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 < X \leq 75\%$ ,  $25\% < X \leq 50\%$  순이었으며,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통담을 보유한 경우  $75\% < X \leq 100\%$ 이 가장 높고, 다음

으로  $25\% < X \leq 50\%$ , ‘모르겠다’ 순이었고, 전통담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75\% < X \leq 100\%$ , 다음으로 0%와  $25\% < X \leq 50\%$ 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담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전통담 조성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전통담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Table 6 전통담 적불제 시행 주민의식 설문 결과

구분	내용	빈도(%)				총 계	
		전통담 有			전통담 無		
		돌담	흙돌담	생울타리			
참여 의사	있다.	32(84.2)	12(100)	6(75)	50(86.2)	35(87.5) <sup>*</sup>	
	없다.	6(15.8)	-	2(25)	8(13.8)	5(12.5)	
	계	38	12	8	58	40	
조성 보조금 비율	0%(X≤25%)	1(3.1)	1(8.3)	1(16.7)	3(6)	-	
	25%(X≤50%)	6(18.8)	4(33.3)	3(50)*	13(26)	4(11.4)	
	50%(X≤75%)	4(12.5)	1(8.3)	2(33.3)	7(14)	7(20)	
	75%(X≤100%)	12(37.5)*	5(41.7)*	-	17(34)	24(68.6)	
	모르겠다	9(28.1)	1(8.3)	-	10(20)	-	
	계	32	12	6	50	35	
	85						
보조금	0%	5(15.6)	-	2(33.3)*	7(12)	7(20)	
	0%(X≤25%)	-	1(8.3)	-	1(2)	2(5.7)	
	25%(X≤50%)	8(25)	3(25)	1(16.7)	12(24)	7(20)	
	50%(X≤75%)	2(6.3)	1(8.3)	2(33.3)*	5(12)	5(14.3)	
	75%(X≤100%)	11(34.4)	5(41.7)*	1(16.7)	17(34)	14(40)	
	모르겠다	6(18.7)	2(16.7)	-	8(16)	-	
	계	32	12	6	50	35	
	85						
지급 주기	관리 때마다	22(68.8)	12(100)	2(33.3)	36(72)	21(60)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	6(18.7)	-	-	6(12)	9(25.7)	
	모르겠다	4(12.5)	-	4(66.7)*	8(16)	5(14.3)	
	계	32	12	6	50	35	
	85						
지원 단위	가구당	7(53.1)	10(83.3)	3(50)*	30(60)	23(65.7)	
	마을 단위	14(43.8)	2(16.7)	-	16(32)	11(31.4)	
	규모 따라 차등 지급	1(3.1)	-	-	1(2)	-	
	모르겠다	-	-	3(50)*	3(6)	1(2.9)	
	계	32	12	6	50	35	
	85						
관리 방안	본인	21(65.6)	6(50)	6(100)	33(66)	21(60)	
	마을 공동	3(9.4)	-	-	3(6)	6(17.1)	
	전문업자	-	2(16.7)	-	2(4)	5(14.3)	
	관리하지 않음	8(25)	4(33.3)	-	12(24)	3(8.6)	
	계	32	12	6	50	35	
	85						

\* 는 상위빈도 항목

또, 전통담 종류 즉, 돌담, 흙돌담, 생울타리에 따라 구분하여 선호도를 살펴보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참여의사는 모두 긍정적이었고, 보조금 중 조성비에 대해서는 돌담과 흙돌담의 경우  $75\% < X \leq 100\%$ , 생울타리의 경우  $25\% < X \leq 50\%$  보조를 원했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돌담과 흙돌담은  $75\% < X \leq 100\%$ , 생울타리는 0%와  $50\% < X$

$\leq 75\%$ 로 나타났다. 보조금의 지급주기는 돌담과 흙돌담은 ‘관리 때마다’, 생울타리는 ‘모르겠다’, 지원단위는 모두 ‘가구당’, 관리는 ‘당사자’들이 직접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전통담 종류에 따른 비교 결과, 생울타리는 다른 종류에 비해 항목별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참여의향이 과반수 이상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두 종류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조성보조금 지급비율  $25\% < X \leq 50\%$ , 관리보조금 지급비율 0%와  $50\% < X \leq 75\%$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두 종류에 비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선호비율 또한 낮았다. 이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울타리 조성 시 인근 산에서 쟁자를 채취하거나 밭에서 직접 성장시켜 이식하므로 재료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 2) 전통지붕

전통지붕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 시 참여의사는 63.75%가 긍정적 의사를 갖고 있었고, 보조금 중 조성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은  $75\% < X \leq 100\%$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 < X \leq 50\%$ 이 다음,  $50\% < X \leq 75\%$ 이 다음 순이었고, 관리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은  $75\% < X \leq 100\%$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 < X \leq 50\%$ 이 다음, 0%와  $50\% < X \leq 75\%$ 이 공동으로 다음 순이었다. 또, 보조금 지급주기는 ‘관리 때마다’ 지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74.5%), 전통지붕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의견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7).

한편, 전통지붕 보유 여부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의사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먼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에서 전통지붕을 보유한 경우는 관리 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밝혔고, 전통지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관리 상 번거로움 외에 가옥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시각적 경관영향 측면에서 건축물의 지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보조금 비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조성비에 대해서는 전통지붕을 보유한 경우  $25\% < X \leq 50\%$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75\% < X \leq 100\%$ ,  $50\% < X \leq 75\%$  순이었고, 전통지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75\% < X \leq 100\%$ 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 < X \leq 75\%$  순이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통지붕을 보유한 경우  $75\% < X \leq 100\%$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 < X \leq 50\%$ ,  $50\% < X \leq 75\%$  순이었고, 전통지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75\% < X \leq 100\%$ 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0%,  $50\% < X \leq 75\%$  순이었다. 이는 전통기와의 경우 재료비가 비싸서 초기 조성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에 전통지붕이

없는 경우는 조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면담 내용과 종합할 때, 전통지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전통가옥을 유지해온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기대치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Table 7 전통지붕에 대한 주민 설문 결과

구분	내용	빈도(%)				총 계	
		전통지붕有			전통지붕無		
		전통기와	합석기와	시멘트기와			
참여 의사	있다.	15(88.2)	6(75)	4(66.7)	25(80.6)	26(53.1)	
	없다.	2(11.8)	2(25)	2(33.3)	6(19.4)	23(46.3)	
	계	17	8	6	31	49	
조성 보조금 비율	0 %(X≤25%)	-	-	-	0(0)	1(2.0)	
	25 %(X≤50%)	5(33.3)	-	2(50)*	7(28)	2(7.7)	
	50 %(X≤75%)	6(40)*	3(50)*	-	9(36)*	4(15.4)	
	75 %(X≤100%)	4(26.7)	3(50)*	2(50)*	9(36)*	17(65.4)*	
	모르겠다	-	-	-	0(0)	2(7.7)	
	계	15	6	4	25	51	
보관리 조조금 비율	0 %	1(6.7)	-	-	1(4)	6(23.1)	
	0 %(X≤25%)	1(6.7)	-	-	1(4)	0(0)	
	25 %(X≤50%)	5(33.3)*	3(50)*	1(25)	9(36)	3(11.5)	
	50 %(X≤75%)	5(33.3)	-	-	5(20)	4(15.4)	
	75 %(X≤100%)	3(20)	3(50)*	3(75)*	9(36)*	13(50)*	
	계	15	6	4	25	51	
지급 주기	관리 때마다	9(60)	5(83.3)	4(100)*	18(72)	19(73.01)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	5(33.3)	1(16.7)	-	6(24)	7(26.9)	
	모르겠다	1(6.7)	-	-	1(4)	-	
	계	15	6	4	25	51	
관리방법	본인	8(53.3)	3(50)*	3(75)*	14(56)	14(53.8)	
	마을공동	-	-	-	-	4(15.4)	
	전문 건설업자	2(13.3)	-	-	2(8)	8(30.8)	
	관리하지 않음	5(33.3)	3(50)*	1(25)	9(36)	-	
	계	15	6	4	25	51	

\* 는 상위빈도 항목

### 3. 전통담, 전통지붕 보전 제도 제언

#### 1) 재료, 신·증·개축, 유지·보수에 따른 조성비, 관리비 보조금 기준 세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협약대상의 현황특성 즉, 존재유무 및 재료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협약내용을 적용함으로서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경관작물의 종류나 재배농지의 지리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ha당 17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이에 농민들은 파종작물 중 종자대가 비싼 경우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에 따라 자급하는 과정에서 작황의 질이 떨어져 경관적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통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선호비율을 조사한 결과 중 전통담의 종류에 따른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돌담이나 흙돌담과 달리 생울타리의 경우 조성보조금 50%, 관리보조금 0%로 나타났다. 즉, 전통담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다름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전통지붕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선호비율 조사 결과는 전통지붕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전통지붕을 보존하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담과 전통지붕 즉, 협약대상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조성·관리의 실경비가 다르고, 협약대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신축해야하거나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등 협약활동이 달라 그 부담감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전통담, 전통지붕의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는 재료특성, 축조방법, 관리방법으로 신·증·개축 및 유지·보수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각 경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직불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 2) 전통담, 전통지붕 종류별 상세 관리지침 마련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관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항목과 관리방법을 협약 당사자인 주민에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촌경관 관련 제도 및 사업에서는 농촌경관 연출이나 관리에 관한 시책내용에 있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행 중인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또한 경관작물 3종류에 대한 생육특성 및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설정이므로, 경관작물 재배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생육가능한 경관작물 분포도를 근거한 작물종류,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적 유의사항, 주변 생태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금지사항, 관례적, 전통적 경관이나 경작수법의 보존을 위한 권장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일반농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실천력 저하를 고려할 때, 전통담과 전통지붕에 대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적용 시 협약의 경관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상세한 조성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전통담에 관한 조성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전통담의 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규격을 제시하고, 관리방법을 재료에 따라, 또는 주기별로, 보존정도에 따라 상세하게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양식의 전통담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다.

### 3) 전통담, 전통지붕 관리주체 양성 및 지역자료구축

지역정체성을 지닌 역사문화경관을 중심으로 한 농촌의 내생적, 주체적 경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 즉, 지역주민들이 기술력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양성할 필요가 있겠고, 지역 고유 양식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 자료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통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육지원은 지역 고유양식이 있는 지역에서 각 지역단위로 고유양식을 소개하고, 습득할 수 있는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민면담 결과, 현재 농촌에서 기존의 고유한 전통담을 유지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기술을 보유한 일반주민 또한 노령으로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전통주택 아카데미”, “전통담 쌓기 교실” 등 지역고유의 건축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경관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고유의 전통건축 양식 보존을 위한 자료구축은 지역 교유양식에 관한 역사문헌자료 및 사진자료, 구두로 전래되는 내용을 종합정리 및 고증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이와미진잔은 지역협약에 따라 마을건축물을 고유건축양식으로 신·개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지역 고유의 건축양식에 대한 설명을 판넬에 정리하고, 전형적인 예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전시하고 있다. 이렇듯 각 지역의 전통양식을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함으로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술교육 및 자료구축을 통한 경관 관리주체의 양성은 단순한 협약내용의 이행이 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문화경관의 질적 개선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경관관리시스템의 내생성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 4) 경관정책의 공통 목표상 설정

농촌경관 관리를 위해서는 역사문화적, 지역적 특성은 물론 심미성, 생태적 안정성을 종합 고려한 목표상을 설정하여 큰 체계 하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은 본질적 특성상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의 관련 사업은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상호간 중복 또는 상충된 접근을 시도하여 혼란을 야기하기 쉽상이다.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마을안길 주변 농가에 흙돌담을 조성하였는데, 호박돌을 활용한 담은 근래 도시공원에서 조성하고 있는 전형적 형태로 지역 고유의 양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당해 지역의 경관에 대한 고찰 없이 일반화된 전통이미지를 부여하려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건축문화재’ 및 지역의 ‘문화재 지정제도’에 선정된 전통담과 전통지붕은 기 조성되어 있는 유적의 보존과 지속적 존치를 목적으로 하여 역사문화경관의 확대, 계승, 창출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농촌경관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토의 경관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세하게는 시·군 또는 행정리 단위, 마을단위까지 경관적 특성을 정립함으로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기 입장이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그 지향하는 경관상을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V. 결 론

‘직접지불제도’는 시행주체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도로 인센티브의 분배가 명확하므로 공공재인 경관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형평성 있게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농촌경관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확대 시행을 전제할 때 적용가능한 대상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담과 전통지붕을 중심으로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분석함으로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나아갈 바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통담, 전통지붕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담은 1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조성에 대한 체계적 틀은 없지만 지역의 풍토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재료별 차이는 있으나, 여름철에 특히 관리가 집중된다. 전통지붕은 경관적 영향은 지붕으로 표출되나, 구조적 측면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문화재 지정 외의 건물들은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존하는 전통담, 전통지붕은 절반 정도만이 양호한 보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Table 4, 5). 둘째,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참여의사는 모두 긍정적이었고, 단, 전통담의 경우 재료에 따라 보조

금 지급비율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개별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가구당 보조금 지급을 원했고, 지급 시기는 관리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급받기를 선호하였다(Table 6).

전통담, 전통지붕에 대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적용에 따른 제도적 보완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대상의 각 현황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경관관리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약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지침을 상세히 마련하며, 셋째, 지역의 경관관리주체를 양성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보를 자료로 구축함으로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며, 넷째, 농촌경관 관리의 내용적 중복 및 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통합적 목표상을 구축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주민의식 조사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수치가 직접적 의미를 갖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결과 치 간의 비율차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추후 전통담과 전통지붕을 실제 제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방법 및 전문업체 일위대가와 같은 실비자료의 고찰을 통한 전통담, 전통지붕 보조금 산정 및 제도시행 방식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 논문은 2006-2007년 농촌진흥청의 농업특정과제로 수행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주1) 전통담은 건축구조물로서 담의 기능과 함께 경관성, 지역고유성을 지닌 농촌의 주요 역사문화 경관요소이다. 건축적 의미에서 담은 “건물대지의 경계 또는 시설물 주위에 둘러막는 낮은 구축물”(장기인, 1996)이라 정의할 수 있지만, 농촌마을 골목길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나지막한 전통담은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갖는 주요 농촌경관요소이다. 지역의 전통담은 그 지역의 소출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어 높이 우거진 고장에서는 통나무를 잘라다 말뚝을 촘촘히 배게 박았고,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경우 대, 갈대, 수수깡, 쌔리 등을 엮어서 바자울을 만들므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다(신영훈, 2004).
- 주2) 전통지붕은 전통담과 마찬가지로 전통가옥의 일부로서 건축구조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농촌경관의 중요한 역사문화경관요소이기도 하다. 전통가옥의 외관은 지붕, 벽체, 기단부의 세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건물의 표정과 의장적 성격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 지붕이다(오현탁, 2000).
- 주3) 이상영(2007)은 축조방법으로 구분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 생울타리가 포함되어 경관에 영향을 주는 가치적 재료로 구분하여 돌담, 흙돌담, 생울타리로 분류하였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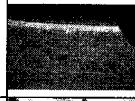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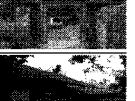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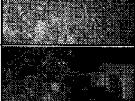
1. 고성보, 2007, 제주밭담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경관자원(제주밭담) 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한국농촌계획학회, 13(3), 123-133.
2. 고성보, 2008,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구감귤(원)의 경관가치 평가, 한국농촌계획학회, 14(1), 43-50.
3. 농림부, 2005, 경관보전 직불제 2005 시범사업.
4. 농어촌연구원, 2004,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방안연구, 농림부.
5. 성주인, 박주영, 2008,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성과분석과 발전과제 도출, 농촌관광연구, 15(1), 85-111.
6. 신영훈, 2004, 질박과 분방의 미 꽃담, 조선일보사.
7. 안동만, 1993, 도시와 전통문화 : 도시개발과 역사 유적의 보전대책, 도시문제, 31(327), 56-64.
8. 안동만 등, 2005, 농촌경관의 농촌다움과 선호도 평가 연구-내국인과 외국인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3), 43-52.
9. 오현탁, 2000, 전통건축의 지붕기울기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시지각적 양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이도원, 2004, 전통마을 경관요소들의 생태적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11. 이상영, 2007, 내륙지방 전통담장의 가치평가 및 보전 방안,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3(2), 51-61.
12. 장기인, 1996, 한국건축대계 6: 개와, 보성각.
13. 정철모, 2005, 경관농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17(3), 191-210.
14. 채혜성 등, 2006,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 시행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농촌계획학회, 12(4), 115-123.
15. 채혜성 등, 2008,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연구-영국의 환경관리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4(2), 65-75.

\* 접수일 : 2008년 10월 17일

■ 3인 익명 심사필

## 부록

## &lt;전통담 현황조사 결과&gt;

구분	재료	연대	구조	상태	특징	사진	구분	재료	연대	구조	상태	특징	사진	
산정군 생초면 대포리	-	강돌	150년	앞담: H120cm W30cm 혜준 뒷담: H800cm 양호	• 유실방지 시멘트칠 • 조선말 도둑, 왜구 침입방지 • 3차례에 걸쳐 축조 • 상부에 기와를 얹음		박00	흙, 돌	100년	H180cm W50cm	양호	• 담, 대문 전통양식 보존 • 기와를 얹은 흙돌담 • 1년마다 주인이 직접 관리		
	민00	호박 돌	10년	H230cm W50cm 양호	• 상부 태풍파괴 후 추가 축조 • 상부에 기와를 얹음		최씨 고가	흙, 돌	90년	H230cm W60cm	양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17호 • 속을대문, 담쟁이넝쿨 식재 • 일부 외벽 시멘트칠 보수		
	민00	강돌	150년	H120cm W60cm 흔적판 남음	• 뒷뜰에 전통담 일부 흔적 • 옆집과의 경계역할 • 앞담은 현대식 적벽돌담		박00	흙, 돌	100년	H150cm W50cm	양호	• 돌거노인 관리의지 없음. • 일부구간 돌로만 보수 • 담 상부 기와 대부분 훼손		
	민00	강돌	200년	앞담: H180cm W50cm 뒷담: H450cm 양호	• 앞담은 시멘트블럭으로 조성 • 뒷담은 3단으로 구성 • 하부 2단은 전통형태 최상단 시멘트블럭으로 기와 얹음		정00	흙, 돌	100년	H180cm W50cm	양호	• 대문 양쪽 적별들로 보수 • 훼손부 비닐포장 • 군 지원을 기다리는 중		
	민씨 고가	흙, 돌	70년	H155cm W80cm (복원) 양호	• 문화재 163호 지정 • 도지원을 받아 보수공사 중 • 마을 내 다른 가옥과 달리 • 흙과 돌을 이용 흙돌담 축조		정00	흙, 돌	100년	H160cm W40cm	양호	• 담 하부 돌로만 축조 상부 • 흙돌담에 비해 두꺼움 • 대문은 양철대문		
	민00	강돌	100년	H110cm W33cm 양호	• 발담 • 수해 때마다 관리 필요 • 수해복구지원금 80만원 받음		정00	흙, 돌	100년	H190cm W50cm	보통	• 담 하부에 벼섯재배 • 전통양식의 대문이 잘 보존 • 대문을 통해 넓은 틀 차경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최00	돌	-	H190cm W45cm 양호	• 철대문과 시멘트 기둥 • 담쟁이 넝쿨로 텁을 피복		540-5 번지	돌	5년	H150cm W60cm	양호	• 겹담, 주변 산에서 돌 채취 • 군에서 지정한 높이로 조성		
	정00	돌	-	H150cm W40cm 일부 훼손	• 입구에 대문 없이 수목식재 • 담, 헛간 경계, 화단 같은 방식으로 돌을 이용해 조성		박00	돌	5년	H160cm W35cm	양호 복원	• 흙담, 철제 대문 설치 • 최근에 새로 조성		
	924 번지	흙, 청돌	100년	H190cm W40cm 양호	• 재료 산에서 채취 • 반은 흙돌담, 반은 돌담 • 양철대문에 나루기등		이00	돌	150년	H190cm W30cm	양호	• 박, 호박, 담쟁이 등 식재 • 담쟁이는 1년에 2~3번 전정 • 흙담		
	천00	돌	100년	H140cm W50cm 양호	• 작년 주인이 직접 1m 보수 • 주택제건축 시 건물쪽 블록담 • 농기계 유입 위해 일부 훼손		512 번지	돌+ 관목	-	돌담 H140cm W40cm 신울타리 H160cm	양호	• 돌담 앞에 사철나무 식재 • 실제 산울타리처럼 보임 • 흙담		
	천00	청돌	100년	H250cm W60cm 양호	• 1952년 보수 • 겹담방식으로 축조 • 보수시 하루 10m 축조 가능		한00	돌	5년	H120cm W40cm	양호	• 흙담 • 기우과 함께 새로 축조		
	이00	돌	100년	H120cm W50cm 불량	•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큼 • 담 위에 양철자봉을 얹음 • 보수시 무너진 돌을 재활용		김00	흙+ 돌	4년	H170cm W40cm	양호	• 도로확장 시 군에서 설치 • 철재대문 설치		
해남군 부평면 동해리	돌회토 민박집	돌	30년	H120cm W60cm 양호	• 겹담, 수세미넝쿨 식재 • 대문 없음		윤00	돌	40년	H150cm W30cm	불량	• 뒷담 일부 블록담으로 보수		
	마을 회관 뒤 빌	돌	2년	H100cm W60cm 양호	• 밭으로 콩재배 • 찬살기 좋은 마을 사업으로 • 일부 보수		윤00	흙, 돌	1년 이하	H160cm W50cm	양호	• 대문 축조에 1700만원 소요 • 정월을 잘 가꾸어 둠 • 남상부 기와 설치(40cm)		
	739 번지	돌	2년	H120cm W40cm 양호	• 흙담, 호박넝쿨 식재 • 마을사람들과 공동관리 • 대문 따로 없음		250 번지	조릿 대	80년	H350cm W70cm	보통	• 짚길 길 확장시 블록담 교체 • 뒷담 조릿대 산울타리 설치		
	양00	돌	30년	H160cm W50cm 양호	• 앞담 겹담, 뒷담 흙담 • 양철 대문		235 번지	흙, 돌	100년	H150cm W40cm	보통	• 호박넝쿨로 피복 • 돌거노인 타지 이들이 관리		
	이00	돌	-	H150cm W50cm 양호	• 흙담, 담쟁이덩굴 식재 • 1달에 한번 마을공동으로 관리(길청소, 담 정비)		-	흙, 돌	100년	H170cm W40cm	양호	• 스텐레스대문, 적벽돌기둥 • 담은 전통양식으로 보존 • 남상부 기와 설치		
	박00	돌	-	H160cm W60cm 양호	• 재정비 시 높이를 낮추고 • 덩굴식물 식재, 흙담		646 번지	흙, 돌	60년	H140cm W50cm	불량	• 훼손된 곳을 비닐포장 • 대부분 블록담으로 교체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230 번지	돌	100년	H180cm W40cm 보통	• 시멘트로 일부 보수 • 담상부 슬래트지붕, 철재대문		임 실 군 강 진 면 부 흥 리	이00	쥐똥 나무	7년	H150cm W50cm	보통	• 쥐똥나무 가을국화 산에서 채취 • 둘기단 50cm, 식재간격 30cm	
	이00	강돌	100년	H180cm W40cm 일부 양호	• 마을 주변 계곡에서 돌 채취 • 지반침하로 자주 허물어짐		이00	쥐똥 나무	4년	H140cm W30cm	양호	• 벌울타리, 널빤지 통행문 • 흙기단 50cm, 식재간격 25cm		
	이00	돌	100년	H150cm W40cm 양호	•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 천 시마다 관리 • 일부 시멘트 보수		이00	맹자 나무	30년	H160cm W70cm	양호	• 새마을운동 때 담 유실 • 둘기단 30~50cm, 식재간격 30cm • 노후한 양철대문		

## 전통담, 전통지붕 관리실태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적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

(표계속)

정읍시	김OO	취동나무	40년	H130cm W70cm	양호	• 앞담 블록담, 뒷담 산울타리 • 봄마다 아들 또는 인력을 사서 전정 • 석재간격 15cm		고창군	이OO	탱자나무	50년	H110cm W80cm	양호	• 주인 직접 1년에 10여회 (여름 2주마다) 정질실시 • 도랑설치 시 유실되어 폭 감소 • 석재간격 30cm	
	전OO	탱자나무	35년	H60cm W50cm	양호	• 밭 올타리 • 탱자나무 뿌리가 양쪽으로 뻗어 채전을 가꾸기 어려움			이OO	탱자나무	60년	H150cm W130cm	양호	• 폭우에 일부 훼손 • 배수처리 중요 • 봄, 여름 직접 전정 • 석재간격 30cm	
산외면	백OO	탱자나무	40년	H120cm W50cm	양호	• 탱자나무 주변 부분자: • 호박넝쿨 식재 • 주인 직접 봄마다 전정, 관리		성내면	이OO	탱자나무	60년	H180cm W100cm	양호	• 기계 전정 • 철새 대문 • 석재간격 70cm	
	안OO	탱자나무	5년	H120cm W70cm	양호	• 밭 올타리 • 매년 봄마다 주인 직접 전정 • 중간에 감나무 식재 • 석재간격 30cm			조OO	탱자나무 무궁화	60년	H120cm W60cm • 무궁화 H140cm W70cm	보통	• 입구는 5년전 무궁화 식재 • 일부 블록담으로 보수 • 봄1번, 여름2번 직접 전정 • 탱자나무가시를 귀찮아함	
오공리	-	탱자나무	-	H70cm W50cm	양호	• 밭 올타리 • 일부는 절조망으로 조성 • 석재간격 20cm		신성리	-	탱자나무	-	H300cm W110cm	보통	• 마을 외곽 밭울타리 • 관리하지 않아 가지가 자연스럽게 뻗쳐있는 상태	
	-	탱자나무	-	H70cm W50cm	양호	• 밭 올타리 • 일부는 절조망으로 조성 • 석재간격 20cm			-	-	-	-	-	-	

### <전통지붕 현황조사 결과>

구분	재료	연대	규모	상태	특징	사진	구분	재료	연대	규모	상태	특징	사진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	-	전통기와	150년	정면: 5칸 측면: 2칸	보통	• 본채는 전통기와이고 일부 부속채는 합석기와로 조성		백OO	전통기와	100년	정면: 4칸 측면: 1칸	양호	• 본채(1500만원), 사랑채 (1000만원), 창고(500만원) 각 지붕 10년전 모두 보수 • 정원을 매우 잘 조성		
	민O	전통기와	10년	정면: 4칸 측면: 2칸	양호	• 미을 입구 가장 큰 규모 • 정원이 잘 정비되어 있음 • 관리인 거주		최씨고가	전통기와	90년	정면: 5칸 측면: 2칸	양호	•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117호. • 도지원에 의해 관리		
	민OO	전통기와	150년	정면: 4칸 측면: 2칸 (리모델링)	양호	• 사랑채의 지붕과 골조를 보 존하고, 외벽과 구들을 황 토로 리모델링(7000만원)		정OO	전통기와	100년	정면: 5칸 측면: 3칸	양호	• 6.25 때 유실된 후 다른 지 역에서 집을 사와서 재건축 • 4년 전 지붕 보수(5000만 원)		
	민OO	전통기와	200년	정면: 5칸 측면: 2칸 (복원)	양호	• 집안 제사 및 별장 이용 • 최근 보수 1억원 소요		정OO	전통기와	100년	정면: 3칸 측면: 1칸	양호	• 본채는 전통기와이고, 바깥 채는 합석기와로 조성		
	민씨고가	전통기와	70년	정면: 4칸 측면: 3칸	양호	• 문화재 163호 지정 • 본채, 사랑채, 행랑채 등 전형적인 전통가옥 구조 • 경상남도 지원 복원 중		정OO	전통기와	100년	정면: 4.5칸 측면: 2칸 • 바깥채 정면: 3칸 측면: 1칸	양호	• 본채 전통기와, 바깥채 초 가를 옮겨 합석기와로 조성 • 바깥채 문광부 민박사업 (7000만원) 지원받아 건축		
	-	합석기와	5년	정면: 4칸 측면: 1칸	양호	• 5년전 합석기와로 조성 • 합석기와 하부 전통기와가 있어 겨울에 따뜻함		동해리	743번지	시멘트기와	30년	정면: 3칸 측면: 1칸	양호	• 일부 증축 •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음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	전통기와	200년	정면: 5칸 측면: 2칸	양호	• 조선말기 혙령기택 • 역사적 가치가 있어 대학생 답사대상지 • 지붕의 내구성이 매우 강함		법곡리	230번지	시멘트기와	1년	정면: 4칸 측면: 2칸	보통	• 1년 전 지붕 수리(500만원) • 전통기와를 시멘트기와로 교체	
	271-2번지	합석기와	5년	정면: 4칸 측면: 1칸	보통	• 가옥 벽체 적벽돌로 외장 • 기와 5년전 재조성(400만원)		평사리	백OO	합석기와	3년	정면: 3칸 측면: 1칸	양호	• 초가를 합석기와로 교체 • SBS 방송사가 금액 지원 • 주인이 직접 관리	
	-	전통기와	10년	정면: 4칸 측면: 2칸	양호	• 10년전 슬래트지붕을 전통 기와로 조성(500만원) • 겹겹		437번지	합석기와	5년	정면: 3칸 측면: 1칸	양호	• 원래는 초가지붕 4차례에 걸쳐 지붕수리 (양철→시멘트→합석기와)		
	윤OO	시멘트기와	5년	정면: 4칸 측면: 1칸	양호	• 5년 전 새로 조성(500만원) • 특별한 관리 없음		고성구문화재위원회	김OO	합석기와	1개월	정면: 4칸 측면: 1칸	양호	• 1달 전에 합석기와로 보수 (300만원) • 주인이 직접 관리	
	646번지	시멘트기와	60년	정면: 4칸 측면: 1칸	불량	• 비가 새서 일부분 천막으로 덮어둠(보수 시급히 필요) • 부속채 슬래트지붕		최OO	합석기와	40년	정면: 3칸 측면: 1칸	불량	• 40년 전 초가를 합석기와로 교체 • 훼손 때마다 보수·관리		
	윤OO	전통기와	100년	정면: 4칸 측면: 1칸	불량	• 전각으로 활용 • 보수가 시급히 필요 • 주인이 1년에 한 번 관리		천OO	시멘트기와	66년	정면: 4칸 측면: 1칸	양호	• 1952년 초가를 시멘트기와 로 보수(50만원) • 가족과 함께 관리	-	